

일. “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”

- ❖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의 시작과 끝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언급합니다 (고후 1:2; 13:14). 이 은혜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?
 -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부를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늘의 영원한 부를 버리고 가난하게 되셨습니다(고후 8:9).
 -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알고, 사랑하며, 본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세상에 오셔서 사셨습니다 (요 15:12)
 -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(빌 2:8)
- ❖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?
 - 의롭다는 인정을 하십니다 (롬 3:24; 엡 1:7)
 - 소망 안에서 기뻐합니다 (롬 5:2)
 -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(고후 12:9)
 -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합니다(롬 6:14)
 -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며 왕 노릇 할 것입니다(롬 5:17, 21)

이. “하나님의 사랑”

- ❖ 성경은 강력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합니다(요일 4:8). 하나님은 직접 창조하신 모두에게 자신의 사랑을 쏟아부으셨습니다. 우리는 자신의 마음속에서,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, 아름다운 꽃과 아름다운 소리로 노래하는 새들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; ...
- ❖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, 또 우리에게 사랑은 덕을 세우며(고전 8:1),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치가 없으며(고전 13:1-3), 하나님께서 내려 주시는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(고전 16:14) 가르칩니다).
- ❖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위대하게 재현된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한 제물로 예수님을 내어 주신 사건입니다(요 3:16).
- ❖ 우리는 이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천하신 사랑의 정신을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실천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받습니다 (요일 3:16)
- ❖ 바울은 하나님의 여러 다른 속성들을 소개합니다:
 - “인내하시는 하나님” (롬. 15:5)
 - “소망의 하나님” (롬. 15:13)
 - “평화의 하나님” (롬. 15:33)
 - “금홍을 베푸시는 하나님” (고후. 1:3a)
 - “모든 위로의 하나님” (고후. 1:3b)
 - “사랑의 하나님” (고후. 13:11)
- ❖ 하나님은 이 모든 속성들을 가지고 계실 뿐 아니라, 우리 안에서도 그분의 속성들이 넘치도록 나타나게 하십니다.
- ❖ 이렇듯 하나님은 사랑이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. 다시 말해:
 -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부어 주심 (요일 3:1)
 -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사랑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(엡 3:19)
 -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부어 주십니다 (롬 5:5)

삼. “성령님의 친교(사귄)”

- ❖ 바울은 자신과 같이 고린도 교인들이 세 분의 인격체,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,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, 그리고 성령님의 친교(사귄)안에 거하기를 기도합니다 (고후 13:14). 여기서 문맥상 바울은 성령님이 추상적인 영향력이 아닌 독립된 인격을 가지신 성령님을 지칭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
- ❖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성령님을 40 회 이상 언급하며, 성령님은 하나님의 단순한 영향력이 아닌 인격적 속성을 지닌 한 분으로 소개합니다:
 -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준비시키시고 (고전 2:4)
 - 하나님의 깊은 사물을 보여주시고 (고전 2:10)
 - 가르치시고 (고전. 2:13)
 - 우리 안에 거하시고 (고전. 3:16)
 -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칭의의 옷을 입혀 주심 (고전. 6:11)
 - 영적 선물들을 주심 (고전 12:7-11)
 - 우리에게 구원의 인을 치심 (고후. 1:22)
 - 우리 마음에 율법을 새겨 주심(고후. 3:3)
 -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심 (고후. 3:6)
 - 우리 죄에서 해방시키심 (고후. 3:17)

사. “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”

- ❖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“성부, 성자, 성령”(마 28:19) 순서로 열거하지만, 바울은 “성자, 성부, 성령”(고후 13:14)으로, 베드로는 “성부, 성령, 성자”(벧전 1:2)의 순서로 소개합니다.
- ❖ 세 하나님은 서로 간에 높고 낮은 서열이 없으시며, 각자가 한 구원의 계획 안에서 다른 역할을 수행하시지만, 세 분 모두 똑같은 속성과 목적을 위해 협력하십니다.
 - 은혜
 - (1) 아버지 하나님께서(고전. 1:3)
 - (2) 아들 하나님께서(고전. 1:3)
 - (3) 성령 하나님께서 (히. 10:29)
 - 사랑
 - (1) 아버지 하나님에게서(요일 2:15)
 - (2) 아들 하나님께서(롬. 8:35)
 - (3) 성령 하나님께서 (롬. 15:30)
 - 사귄(친교)
 - (1) 아버지 하나님에게서(요일 1:3)
 - (2) 아들 하나님께서(요일 1:3)
 - (3) 성령 하나님께서 (빌. 2:1)
- ❖ 이렇게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사귄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시기를 기도하며 편지를 마칩니다(고후 13:14)